

박원순 서울시장

‘성평등 도서관 여기’ 서울서 문 연다

각종 여성정책·운동 등 자료 집약된 전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년), 오래된 관습·관행이었던 호주제 폐지(2005년) 등 성평등과 관련한 가시적인 변화가 몇 십 년에 걸쳐 진행 중이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올해, 그 이름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됐다.

이러한 성평등의 역사, 변화상을 비롯한 각종 여성정책, 여성운동 등의 자료가 집약돼 있는 국내 최초 성평등정책 전문 공간인 ‘성평등도서관 여기’가 서울에서 문을 열었다.

스웨덴(크빈삼 국립 젠더 연구 도서관), 덴마크(크빈포), 미국(플로렌스 페미니스트 도서관), 영국(페미니스트 도서관) 등 해외 국가 도시들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공간형태의 이른바 ‘젠더 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서울여성플라자(동작구 대방동) 내 2층에 857.05㎡ 규모로 문을 여는 ‘여기’는 전체가 트인 열린 공간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여성정책 자료와 여성운동·여성단체·여성기관 자료가 모여 있고·관련 모임과 토론, 전시 등을 상시로 열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성평등도서관 여기’라는 이름은 최근 시민공모전(3.27.~4.19)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탄생했다.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을 기억하는 공간, 바로 이곳(here)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은 14일 서울여성플라자 2층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여성단체,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평등도서관 여기’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기념 주요 행사로 ‘젠더토크’와 ‘천경자 특별전’도 열렸다.

젠더토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강금실 변호사, 공지영 작가가 참석자로 나서 국내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을 소송화한 ‘서울대 신교수 사

건’(1993년)과 호주제 폐지(2005년) 등을 중심으로 성평등 역사의 주요 기록과 기억 등을 공유하고, 그 의미를 어떻게 어어 나갈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박원순 시장은 당시 서울대 신교수 사건을 공동번호 한 바 있으며, 강금실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저술(2000년 1월)하는 등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젠더토크 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강금실 변호사, 공지영 작가,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여성단체 관계자 등이 보유하고 있던 성평등정책 자료들을 기증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황교안 국무총리

충북 화장품 우수업체 방문



황교안 국무총리가 중소기업 시찰 및 의견수렴을 위해 충북을 방문했다. 이날 황 총리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에 위치한 ㈜파이온텍을 방문, 현장을 시찰하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이시종 충청북

도지사와, 이관섭 산업부1차관, 한정희 중기청장, 김태곤 파이온텍 대표도 함께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황 총리는 ㈜파이온텍의 현황 브리핑을 보고받고 “창의력과 아이디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R&D,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파이온텍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기술경쟁력 있는 기업, 역동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화장품·뷰티 산업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를 착수하는 등 충북은 화장품 메카로서 발전하기 위한 여러 지원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의지를 비추면서,

화장품 메카로서의 지속적인 완성과 대한민국 중심의 교통의 요지로 발전해 나갈 충북의 3대 핵심 현안과제를 건의하며 황 총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종이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권선택 대전시장

‘충청 공동 현안 해결’ 힘 모은다



충남도가 지역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체계 강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대전시와 손을 맞잡았다.

안희정 지사와 권선택 대전시장은 14일 대전시컨벤션센터에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동일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도와 대전시는 지역공동체로서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길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양 도·시는 ▲지역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체계 강화 ▲양 시·도 우수 시책 등 행정혁신 사례 공유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계 협력 사업 추진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등 상호 교류 ▲기타 우호증진 및 상생협력 사업 등을 적극 협력한다.

협약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도와 대전시는 이와 함께 ▲지역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 공동 추진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공동 추진 ▲지역 축제·문화행사 등 교류 및 공동 개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로컬푸드 활성화 등 5개 사업을 상생협력 과제 실천사업으로 정했다.

우선 ‘지역 현안 협력체계 강화’는 ▲

옛 충남도청사 조속한 국가 매입 및 관사촌 활용 ▲호남선 KTX 서대전역·논산역 운영 확대 및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건설 등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을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은 충청유교문화의 체계적인 보존·개발과 문화관광 인프라 공동 구축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발굴 및 총사업비 확대와 국비지원 상향 등을 위해 힘을 모은다. 또 ‘금강 수 환경 공동 모니터링’은 금강의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등 공동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2단계 모니터링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 축제·문화행사 교류 및 공동개최’는 지역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상호 참여하고 홍보함으로써 지역 관광과 문화를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것이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희정 지사는 “이번 협약은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사업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상생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한 약속”이라며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대전과 충남이 공동 현안에 함께 대응할 때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는 만큼, 협약을 적극 이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강만혁 기자

신원섭 산림청장

도시생활권 산사태 고위험 정확히 예측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 고위험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산사태 예보·경보는 물론 안전한 대피 시기와 경로까지 알려 주는 ‘산사태 종합경계피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상청의 강우레이더 관측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산사태 발생 예측정도가 가능해졌다.

지난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생활권은 산사태 예보제와는 별도로 고위험지역을 찾아내 보다 정확한 예측과 피난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는 전 국토의 64%에 해당하는 산지

를 대상으로 고위험지역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으며, 위험지역의 전조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센서와 정보통신기술, 경보 발령을 위한 센서 연계값 등의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생활권 고위험지역을 찾아낼 수 있는 산사태·토석류 통합위험지도를 작성했다.

산사태·토석류 통합위험지도는 산사태의 물리적 강도와 위험지역 내의 건물과 가옥을 분류해 거주, 이동인구로 표현한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했다.

고위험지역에 사방댐과 같은 사방구조물 설치기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산사태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 도입해 조기에 위험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시스템은 산사태 무인원격감시시스템에 의해 위험정보가 전달된 후 안전한 대피소까지의 최단경로를 알려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물론 지역주민 스스로가 산사태 골든타임을 인지하고 피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개발된 종합시스템은 웹은 물론 모바일에서도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분석해 지도에 그 경로를 표시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국립산림과학원장은 “향후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산지와 도시생활권의 종합적 산사태 경계피난시스템으로 실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
신화산업개발이 함께 합니다**

주요업종

- 토목공사
- 골재운반 도소매
- 건설기계 대여
- 자연석 및 조경석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 판매 및 시공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1번 라길11(성화동)
전화 043)238-8272 / 팩스 043)238-8273
E-mail: shinhwa8273@naver.com